



주간

대학교육

제600호

2010년 7월 12일

The KCUE Weekly

발행인 : 이기수 / 편집인 : 성태제 / 발행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21-904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01 KGIT상암센터 11층
 대학홍보 안내 및 문의 전화 : 02 · 6393 · 5285 팩스 : 02 · 6393 · 5280 이메일 : weeklynews@kcue.or.kr 홈페이지 : www.kcue.or.kr

대교협 주간 주요 활동

● 제10차 교육협력실무위원회 개최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고려대 이기수 총장, 이하 대교협) 교육협력실무위원회는 2010년 6월 25일(금) 서울역 그릴에서 제10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대학 및 중등교육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매달 개최되는 교육협력실무위원회에서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대학 연계 방안 및 입학사정관제 정착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며, 교육 현안에 관한 의견수렴 및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토론한다.

● 대학 성희룡 고충상담원 워크숍(기초/통합/심화)



대교협 고등교육연수원은 2010년 6월 30일(수)부터 7월 2일(금)까지 대구 인터볼고 호텔에서 대학 성희룡 고충상담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대학의 성희룡 고충상담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대학성희룡 고충상담과 사건처리, 성희

룡 고충상담원 재충전, 영화를 통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 한국사회 남성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대학의 교육과정, 학적, 성희롱 고충상담원 임파워링, 분노 다루기의 내용으로 대학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실무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성희롱 피해자의 인권 회복 및 성매매 근절, 그리고 성 평등한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대학 성희롱 고충상담원 네트워킹과 예방업무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가자간의 상호정보 교환과 토론의 장을 열어 대학 현장에서의 실무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시설관리업무 담당자 워크숍



대교협 고등교육연수원은 2010년 6월 30일(수)부터 7월 2일(금)까지 대구 인터볼고 호텔에서 시설관리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대학의 시설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콘크리트의 내구성, 학교 석면관리, 대학별

사례발표 및 토의(저탄소 녹색 성장과 대학의 대응방안, 인하대 그린캠퍼스 종합상황실 구축방안, 심폐소생술), 마음과 건강, 대학시설의 종합적 계획과 평가 등 대학의 시설관리업무 담당자들에게 필요한 건물·시설의 유지관리 및 실천 사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원대학 소식



군산대학교

새만금 지역의 유일한 국립대학이자 새만금 중심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는 군산대학교(총장 : 채정룡)가 미래형 국가사업을 선도하는 산학연관 전진기지가 될 새로운 새만금 캠퍼스를 조성한다.

군산대는 지난 7월 1일(목) 기획재정부로부터 새만금지역인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 3만9천910㎡(약 1만2천평)를 무상으로 관리 전환 받았다. 이에 따라 군산대는 이 부지에 「저탄소 녹색성장 산학연관 융합단지」를 조성하기로 예정하고, 구체적인 사안 추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올해 기획재정부 비축토지 관리전환 신청한 전국 국립대학 5개교 중 군산대만 유일하게도 관리전환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 캠퍼스 부지를 확보한 채정룡 총장은 “군산 오식도동 515번지 부지는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세계가 부러워할 저탄소녹색성장의 메카이며, 새만금에 기업체와의 산학연관 등을 통해 지역산업 및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에 군산대의 의미가 있다”며 “글로벌 산학협력의 모델로, 전라북도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선도하는 새만금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오공과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총장 우형식)는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성과평가'와 '2010년도 사업계획 컨설팅'에서 모두 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금오공대는 3억3천2백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게 되며, 2010년에 총 37억5천3백만원의 국고 지원금을 받게 된다.

3년 연속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금오공대는 '현장 중심의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취업촉진, 학업성취도향상, 창의적 공학교육 강화, 친기업형 공학인재 양성, 첨단교육 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금오공대 김영학 기획협력처장은 "그 간 특성화 공과대학으로서 대학이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학생 교육 경쟁력 강화의 결과"로 평가하였다.



부경대학교

부경대학교(총장 박맹언)는 7일 오후 5시 대연캠퍼스 대학극장에서 10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제16회 전국대학생 모의유엔회의 개막식을 열었다.

부경대가 주관하고 유엔한국협회(회장 김승연·한화그룹 회장) 주최, 외교통상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후원하는 이 행사에는 부경대를 비롯 전국 58개 대학에서 선발된 5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이 행사가 국립대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열린 개막식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축

하영상메시지를 통해 "앞으로 국가 간의 협력이 세계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젊은 학생들이 실천적인 행동으로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가기 바란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세계 각국의 대표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4일간 테러, 인권 등 4개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이게 된다. 제1위원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역할', 제2위원회는 '유엔의 대테러전략의 이행 방안'에 대해 영어로 회의를 진행한다.

제3위원회는 '장애인 권리증진을 위한 범세계적 노력', 제4위원회는 '2015년까지 새천년 개발계획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각각 토론한다.

마지막 날인 10일 위원회별 결의안을 채택하며 위원회별 우수 대표단을 시상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뉴욕과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회의 참관 기회가 주어진다.

이 행사는 대학생들의 유엔 등 국제기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제회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배양하는 기회를 제공, 국제기구 진출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199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안동대학교

국립 안동대학교(총장 이희재)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의 2009년도 성과평가 및 2010년도 사업계획 컨설팅에서 전국 지방대학(중형) 중 두 분야 모두 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동대는 2010년도 국비지원금 2억 9,200만원(성과평가 : 1억 6,700만원, 사업계획 컨설팅 : 1억 2,500만원)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17일, 해당 대학들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실시한 후 기 제출한 「2009년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실적보고서와 「2010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심사를 반영한 최종 결과로서 안동대학교가 우수 대학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안동대학교는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어 금년도에 31억 2,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았으며, 인센티브 지원금을 추가하여 대학의 교육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안동대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중심대학'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애니콜 신화’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62)이 최고 대우를 받고 연세대 학교 교수로 자리를 옮긴다.

연세대학교(총장 김한중)는 “무선통신분야의 선구자 역할을 담당했던 이기태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부회장을 연세대 교수로 공식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 세계일류기업인 삼성전자가 배출해 낸 ‘명품인재’ 이 부회장은 연세대 국제캠퍼스에 신설되는 글로벌융합학부의 IT 융합 전공교수가 된다. 연세대는 이 부회장의 교수 임용을 통해 연세대 국제캠퍼스를 산학협력의 전초기지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글로벌 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대기업 CEO급 임원이 대학의 석좌교수나 객원교수로 부임하는 경우는 흔히 있지만, 이 부회장처럼 곧바로 전임교수로 임명될 뿐만 아니라 총장 수준의 최고 예우를 받는 것도 연대 역사상 처음이다. 교수가 되려면 반드시 박사 학위가 있어야 한다는 학벌주의에서 벗어나, 국내외 산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학사출신으로 교수가 된 것도 연대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케이스. 이 부회장은 ‘연세대 국제캠퍼스 글로벌융합학부 첫 교수’라는 영예로운 타이틀도 갖게 된다.

이기태 부회장은 고품질 마케팅 전략을 도입, 삼성 휴대폰 ‘애니콜’을 수출 효자품목으로 만들어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애니콜을 통해 국내 산업의 품질경쟁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 연세대는 오랜 기간 동안 전략적으로 이 부회장의 교수 임용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이 부회장이 장고 끝에 승낙한 것이다. 세계적인 기업 삼성전자에서 40여년간 쌓은 노하우를 연세대에 심어 놓겠다는 강한 의지가 연대 교수 수락의 배경. 이 부회장은 “연세대 국제캠퍼스를 진정한 산학협력의 모델로 삼고 세계적인 글로벌 대학의 허브로 만들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이 부회장을 영입하기 위해 연세대가 내건 대우도 매우 파격적이다. 탁월한 경력을 인정받아 임용부터 ‘전임교수’ 타이틀을 받게 됐다. 이재용 연세대 공과대학장은 “굴지의 대기업 임원으로 국내 IT업계의 최고 권위자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파격적인 대우로 연세대에 모시게 됐다”면서 “연세대 총장과 같은 수준의 최고 예우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연세대 국제캠퍼스 글로벌융합학부 교수로 있으면서 IT 융합 전공관련 연구와 강의를 하게 되며, 명품인재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에도 앞장 설 계획이다.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총장 오거돈)가 총 사업비 224억원 규모의 ‘생산 유·가스전 평가 및 생산시스템 최적 설계·운영 기술’ 개발을 주도한다.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최근 지식경제부가 선정한 2010년도 상반기 신규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R&D 지원과제)의 ‘생산 유·가스전 평가 및 생산시스템 최적 설계·운영 기술 개발’ 국책사업을 유치했다.

이에 따라 한국해양대는 매년 44억 8592만 원씩 5년(2010.6.1~2015.5.31)간 224억 296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석유·가스 생산시스템 최적 설계·운영

기술과 생산 유·가스전 자산가치 평가 시스템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한국해양대 산학협력단이 총괄주관기관이며 서울대, 전남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 사업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의 총괄주관책임자인 한국해양대 임종세 교수(에너지자원공학과)는 “해외광구를 활발히 개발하고 생산사업을 추진하려는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핵심 전략기술”이라며 “해외에서 매입 가능한 유·가스전의 증가, 기존 유·가스전의 생산량 증대와 더불어 효율적인 광구 운영을 통한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국내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동대학교

한동대학교(총장 김영길)가 2009년에 시행한 우수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성과평가에서 지방 소형대학 그룹 중 1위에 선정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우수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한동대학교는 이번 평가 결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와는 별도로 2억8천4백만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한동대는 이번 성과평가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학부생을 위한 연구프로그램인 STAR (Self-motivated, Trans-major, Application, Research)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STAR사업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대학원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과 달리 학부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여러 학부의 재학생으로 구성된 연구팀들은 다양한 전공과 관련한 자유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

행하게 된다.

전교생이 두 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한동대에서는 다양한 전공을 가진 2명 이상의 학생들이 모여 학제간의 벽을 넘은 협력 연구를 통해 창의적인 문제해결법을 도출할 수 있도록 STAR 사업을 통해 돕고 있다.

한동대는 STAR프로그램이 학부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을 위해 스스로 탐구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문화를 장려하여 교육중심대학에서의 새로운 학생연구모델로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연구결과가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나아가 개발도상국의 문제해결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한동대는 이번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추가로 지원 받은 인센티브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을 위한 국제화 프로그램과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한동대는 2008년과 2009년에 이어 올해에도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되어 3년 연속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작년에 있었던 2008년 사업 성과평가에서도 1위를 하였으며 2009년 사업의 우수사례 공모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한동대는 지난 6월에도 '잘 가르치는 대학'을 지원하는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에도 선정되어 4년 동안 재정지원을 받게 되며,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으로도 2년 연속 선정된 바 있다.

개교 당시부터 학부중심, 교육중심대학을 천명하며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혁신을 주도해온 한동대는 최근 정부가 시행하는 재정지원 사업에 계속해서 선정되면서 명실상부한 교육중심대학의 모델로서 위상을 공고히 다져가고 있다.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소식

●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 계획 공고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0. 11. 18. (목)에 실시되는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2010. 7. 5.(월) 공고하였다.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G20 정상회의 일정과 겹침에 따라 당초 시험일에서 1주일 연기된 11월 18일(목)에 실시하며, 성적통지표는 채점기간을 7일 단축하여 당초 계획대로 12월 8일(수)에 시·도교육청 또는 출신고등학교를 통하여 통지된다.

여러 차례 공지된 것처럼,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은 EBS 교재와 연계를 강화하여 출제한다. 연계 비율은 문항 수 기준으로 70%이며, 연계 방법은 영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중요 개념이나 원리의 활용, 지문 재구성, 그림, 도표 등의 자료 활용, 문항 변형 등이다. 연계 대상 교재는 당해 연도 수험생을 위한 교재 중 평가원이 감수한 교재이다.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는 응시원서 작성 내역을 수정,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을 운영하여 이미 원서를 접수했더라도 지정된 기간 내에 시험영역 및 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응시원서 작성 및 접수 기간은 지난해보다 1일이 앞당겨진 8. 25.(수)부터 9. 9.(목)까지 12일간이며, 응시원서 접수내역 변경 신청 기간은 9. 7.(화)부터 9. 9.(목)까지 3일간이다.

기사를 기다립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한국 대학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홍보하기 위한 채널이 되고자 국내 고등교육 현황 및 회원 대학 소식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대교협 영문 홈페이지에 제공합니다. 귀 대학의 정보를 홍보할 수 있도록 기사와 사진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사를 국문으로 보내주시는 경우 선별·번역 후 홈페이지에 게재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사 보내주실 곳: weeklynews@kcue.or.kr

지난 주간대학교육(국문) 보기:

<http://www.kcue.or.kr/>->대학교육소식->주간대학교육

회원 대학 소식(영문) 보기:

<http://english.kcue.or.kr/> ->

News on South Korean Higher Education->

Member Universities News

* 구독신청

대교협 홈페이지 내 대학교육소식 메뉴에서 신청 해주시면, 매주 1회 개별 이메일로 발송됩니다.